

201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생명 나무

메시지 10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유지함

성경: 요 14:23, 15:4-5, 요일 2:27-28, 3:24, 4:13, 계 21:3, 22

- I.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요 3:16), 즉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고전 1:30),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갈 2:20, 고후 13:5).
- A. “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3:17), “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 증언하십니다.” (롬 8:16), “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전 6:17).
 - B. 이러한 '한 영'은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영이시며 이 두 영은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다.
 - C.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곧 생명나무와 함께하는 가지들로 묘사되었다.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이다.
 - D.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들 안에 있고 포도나무는 가지들을 통하여 사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생활이다.
 - E. 주님과 우리의 유기적인 하나, 우리의 생명의 하나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5 절.
- II.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내주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2:27.
- A.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것 —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취하는 것이다 — 6, 24, 27-28 절, 3:6, 24, 4:13.
 -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2:24).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물며 내주하는 것이다(요 15:4-5).
 - 2.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는 것이며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 즉 신성한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 요일 1:2-3, 6-7, 2:10.
 - B.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갖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 — 그분이 우리와 하나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누림으로 갖는 것이다 — 마 1:23, 18:20, 28:20, 딤후 4:22, 고후 2:10, 출 33:11, 14, 고전 7:24.
 - 1.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갖는 것은 남아있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 요 15:7-8, 16.
 - 2.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갖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실재의 영을 갖는 것이다 — 14:17.
- III.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생활필수품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 6 절, 10:10.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다 — 20:22.
 - C.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이다 — 4:10, 14, 7:37-39.
 - D.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 6:35, 57.
 - E.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 8:12.
 - F.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거처이다 — 14:2, 23, 15:4-5.

IV.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가의 거처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왕비와 그분의 왕의 궁전,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 45:13, 8, 요 15:4-5, 엡 5:27, 계 22:5, 롬 5:17, 비교 아 6:4.

- A.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갖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요 15:4-5, 요일 4:15-16, 계 21:22, 신 33:27 상, 시 90:1.
- B.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분을 벗어날 때 죄들과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 3-11 절, 요 16:33.
- C.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즉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체험이며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1 편.

V.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한다 — 요 14:21, 23.

- A.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며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이 거처는 상호 거처이며 그 거처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 23 절.
- B.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 고전 2:9-10, 엡 6:24.

VI.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기름바름의 내적인 가르침을 관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한다 — 요일 2:27.

- A.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과 우리의 내적 존재에 기름바르는 영을 적용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 B.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분이시자 기름바르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그분을 내적인 기름바름으로 누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 히 1:9, 3:14, 고후 1:21-22.
- C. 우리 속에 있는 복합적인 영의 움직임과 일하심이신 기름바름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바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름바름은 생명의 내적인 감각과 내적인 의식에 의해 몸의 머리이신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하신다 — 시 133 편, 고전 2:16, 롬 8:6, 27.
- D. 머리이신 그분이 몸의 한 지체가 움직이길 원하실 때 그분은 내적인 기름바름을 통해 그것을 암시하시며 우리가 그 기름바름에 순종할 때 생명이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흐른다. 우리가 기름바름에 저항할 때 머리와 우리의 관계는 방해를 받으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이 멈춘다 — 골 2:19, 행 16:6-7, 고후 2:13.

VII.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을 대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영이신 즉각적인 말씀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요 5:39-40, 6:63, 고후 3:6, 계 2:7.

- A.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하신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가지며 내적인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실지적인 주님에 대한 임재를 갖는다 — 엡 5:26, 6:17-18.
- B.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으며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즉각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8:31, 15:7, 요일 2:14.
- C.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5:7, 고후 2:17, 13:3, 고전 14:4 하.

VIII.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8:2, 4.

- A.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넘치며 측량할 수 없는 영에 의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이며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안다 — 고전 15:45 하, 롬 8:16, 고전 6:17, 빌 1:19, 요 3:34, 요일 3:24, 4:13.

B.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영의 법으로 활성화시키는 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 빌 4:13, 2:13, 살전 5:16-18, 골 3:17, 4:2.

IX.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은밀한 곳으로 취하여 그분이 우리의 내적인 피난처, 우리의 숨는 곳, 우리의 망대, 우리의 요새,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우리의 높은 피난처로 취하여 악한 자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시 91:1-4, 31:20, 18:1-2, 36:7, 요 14:30.

X.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림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끄지 않는 길이다(살전 5:16-19, 비교 딤후 1:6-7). 그 영을 끄지 않는 것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 영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엡 4:30, 시 42:5, 8, 11).

XI.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에 의한 것이다 — 요 21:15-17, 15:10.

A.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 요일 3:23-24, 요 13:34-35.

B. 형제 사랑과 관련된 계명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의 행함에 있어서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 빛이 비치고 있으며 신성한 능력이 계속 있기 때문이다 — 요일 2:7-8.

C.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4:16-17.

1.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2. 여기서 '담대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 고후 5:10.

3.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XII.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취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과의 우주적인 합병체의 실재 안에 사는 것이다 — 요 14:2, 10-11, 17, 20, 23.

A.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교회의 궁극적인 합병체이다 — 계 21:3, 22.

B.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며 장막의 중심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우주적이며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 3 절, 출 16:32-34, 히 9:4, 계 2:17.